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폐회

-제2차 본회의



강릉시의회는 지난 3월 27일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를 건을 원안가결했고, 산업위원회 공무국외 연수 결과를 보고받았다. 행정·산업위원회에서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주요 조례안 및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위원회별로

주요 현장을 방문했으며,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의원연구회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어서 의원 2명의 건의안 발표와 의원 3명의 10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총 20개 안건과 2명의 의원이 발표한 2건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행정·산업위원회 활동(제307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안건처리현황 (조례안 7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안건 원안 가결
-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2건 안건 수정 가결
- 제8기 강릉시 지역 보건의로 계획에 대한 보고 완료



산업위원회

안건처리현황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4건)

-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개 안건 원안가결
- 2035년 강릉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 찬성의견 채택

행정·산업위원회 현장 방문 2023. 3. 23



행정위원회, 강릉아트센터·사랑의 일터 및 애지람 방문



산업위원회, 흥제정수장·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

건의안 발표



대표발의자 김문섭 의원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이유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상속재산 파산 사건'과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 보호 사건'은 재판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이어서 영동지역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강릉시의회는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을 향상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본 사건의 재판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함.

이송처 국회, 법무부, 대법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대표발의자 박경난 의원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막대한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반면 난임 부부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힘든 시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음.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으나 소득 기준에 제한이 있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모든 난임 부부가 차등 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함.

이송처 국회, 보건복지부, 강원도, 강원도의회 및 17개 시·군의회

10분 자유발언



배용주 의원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철저 요청

강릉시에 만연하고 있을지 모르는 정의롭지 못한 예산 집행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특정 업체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 물품 제작과 배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당초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호 물품이 꾸러졌고 자가격리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물품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등 강릉시가 신뢰성을 잃을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해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합니다.



김은숙 의원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공적 지원 적극요청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는 지적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인,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에 해당하며 지적장애 집단의 2.3%보다 6배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누리는 복지 도시 강릉시를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해 검사비 지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을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가족 기능의 회복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제일 강릉'으로의 한걸음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윤희주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강원도 제2청사'의 승격에 따른 기대와 함께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에 미래를 이끌 첨단 전략 산업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 및 발전을 선도하고 전담할 광역행정서비스 기능의 확대 준비가 시급합니다.

무늬만 제2청사가 아닌, '부지사'가 직접 상주하며 그에 걸맞은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실질적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침체한 영동권을 살리고 강원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가 명실상부한 '강원도 제2청사'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연구회 착수보고회 3. 23~3. 24



강릉시 도시정책 방향 연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 중심에서 더 나아가 강릉시 21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변화 실태와 생활 편의시설 현황 및 분포 실태분석 등을 통해 인구문제 대응 방안과 정주 환경 개선 등 도시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한다.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연구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정책지원관 활용 근거가 마련되어 그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연구회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연구, 세미나 등을 통해 강릉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강릉시 인재육성정책 연구회

지역 인구소멸과 경제 활성화 등 도시 장기발전 대책으로, 강릉시 실정에 맞는 국제학교 설립 모델을 연구한다. 연구 용역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제도 검토를 비롯해 강릉시 교육 현황 등 여건과 학교 설립 전·후의 도시인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진국형 교육 도입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강릉시 관광 활성화 연구회

연구 용역을 통해 강릉의 야간 관광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환경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통한 야간 관광사업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릉시 경제·산업 발전 연구회

강릉시 청년 정책 발굴을 통한 경제·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용역을 통해 강릉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 비전 및 목표를 도출하여 강릉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다.

강릉시의회·안양시의회 합동 연수



**1996 자매결연 후 매년 합동 연수
고향사랑 기부금 서로 기부하며 우의 다져
바다부채길, 오죽헌·시립박물관 견학**

강릉시의회는 경기도 안양시의회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강릉시의회에서 합동 연수를 열었다.

두 시의회는 지난 1996년 12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매년 의원 합동 연수와 상호방문 등을 통해 두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교환과 친선을 도모해왔으며, 올해로 27주년을 맞이했다.

두 시의회 의원들은 합동 연수 첫날인 지난 3월 29일 오죽헌·시립박물관을 견학한 후 개회식에서 두 의회의 의원을 소개했다. 이어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SCS 아카데미' 심은진 강사의 '신뢰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특히, 두 시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했다.

또 둘째 날인 3월 30일에는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 현장을 방문했다.

“서로의 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두 시의회의 공동 발전을 위한 합동 연수에 참석하여 주신 안양시의회 방문단과 이를 환영하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김홍규 강릉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진행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이 단순히 기부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의 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돈독한 관계로 발전되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위 큰 사진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강릉 대형 산불 현장에서 김기영 강릉시의회의장, 배용주 부의장, 의회 직원들이 경포호 주변의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0호인 '방해정'으로 불이 옮겨붙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주변 소화전을 이용해 진화한 결과 문화재를 지켜낼 수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기영 의장, 배용주 부의장, 김완기·박성균 의회사무국 직원



아래 사진 차례대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3.24), 강릉시민축구단 홈 개막전(3.25),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과 강릉시의회 견학(3.31),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격려 방문(4.3)

